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3부 · 적극적 표지 3: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

『신앙감정론』 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세 번째 적극적 표지 (부흥과개혁사 2005, 인쇄 365~381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먼저 '도덕적'이라는 말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는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도덕적 완전성과, 능력·지식·위엄처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본성적 완전성이 있습니다. 그는 거룩함이 하나님과 천사, 성도, 말씀, 그리스도, 복음, 천국의 아름다움을 모두 결정한다고 논증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거룩함을 기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새 영적 감각이 맛보는 것도 바로 거룩함의 달콤함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두려운 위엄은 마귀와 악인,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강하게 느끼고 찬양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엄 체험만으로는 은혜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위엄을 느끼는 감각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감각은 거룩함을 보는 눈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 표지 카드

표지 3(적극): 참으로 거룩한 감정은 먼저 신적인 것들이 지닌 도덕적 탁월함, 곧 거룩함의 사랑스러움에 뿌리를 둔다.

이 표지가 증거인 이유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고 맛보는 일이 거듭난 사람의 새 감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무서움은 마귀도 알고 떱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심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은혜 받은 마음만 할 수 있습니다.

📜 1. 명제와 '도덕적'이라는 말의 뜻

에드워즈는 거룩한 감정의 원천이 신적인 일들의 도덕적 탁월성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세웁니다. 그러고는 신앙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독자를 위해 용어부터 풉니다. 여기서 '도덕적'은 흔히 말하는 품행이 아닙니다. 십계명 둘째 돌판의 의무를 겉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교도에게도 있는 정직·정의·관대함·공중도덕도 아닙니다. 그는 신학자들의 구별을 끌어옵니다. 도덕적 악은 죄, 곧 마땅히 할 것을 거스르는 악입니다. 본성적 악은 고통·고문·치욕이나 타고난 결함처럼 선인이든 악인이든, 천사든 마귀든 누구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죄의 본질이 없습니다. 선도 마찬가지로 나뉩니다. 즐거움·영예·힘·지식·학문은 본성적 선이고, 의지를 가진 존재에게 어울리는 옳음과 사랑스러움이 도덕적 선입니다. 천사의 예를 들면, 큰 지식과 힘과 영예로운 지위는 본성적 선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 서로를 향한 순수하고 불타는 사랑은 도덕적 선입니다.

1. '도덕적'은 단순한 착한 품행이 아니다
2. 도덕적 악은 죄, 본성적 악은 고통·결함
3. 즐거움·힘·지식·영예는 본성적 선
4. 천사의 능력은 본성적, 사랑은 도덕적 선

> **(직접 인용 없음)**
> 개념을 정리하는 단락이라 에드워즈가 장절을 달지 않는다

📜 2.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이 시작되는 자리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완전성도 둘로 나눕니다. 도덕적 완전성은 의로우심·진실하심·신실하심·선하심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본성적 완전성은 능력·전지·영원·편재·두려운 위엄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참된 도덕적 탁월성이 바로 거룩함이므로, 거룩함 말고 다른 참된 미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도 그분의 거룩하심에 속합니다. 사람의 거룩함은 하나님 거룩하심의 '모형'일 뿐이어서 원형보다 많은 미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 안의 하나님 형상도

같은 본성적 형상은 남아 있습니다. 이 구별 위에서 에드워즈는 성도가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도 즐겨 묵상합니다. 그래도 사랑의 출발점은 거룩하심이고, 다른 모든 사랑이 거기서 흘러나옵니다. 무한한 거룩함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전제하므로, 거룩함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1. 도덕적 완전성 = 거룩하심
2. 본성적 완전성 = 위대하심(능력·위엄)
3. 거룩함 밖에 참된 미덕은 없다
4. 타락으로 잃은 것은 도덕적 형상이다
5. 거룩함을 사랑하면 모든 속성을 기뻐한다

> **(직접 인용 없음)**
> 개념을 정리하는 단락이라 에드워즈가 장절을 달지 않는다

📜 3. 거룩함이 모든 아름다움을 결정한다

지성을 가진 존재가 아름다운 까닭은 무엇보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천사는 아무리 능력과 지식이 많아도 마귀처럼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마귀는 힘과 지식이 커서 오히려 더 두렵고 혐오스럽습니다. 선택된 천사는 같은 능력이 거룩함과 결합되어 더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간교함이 아니라 거룩한 지혜라서 영광스럽습니다. 위엄은 거룩한 위엄이라서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습니다. 불변성은 고집스러운 완고함이 아니라 거룩한 불변성이라서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일은 거룩하심을 기뻐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거룩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비와 은혜를 사랑해도 자기 이익 때문에 사랑할 뿐, 그 참된 영광은 보지 못합니다. 같은 원리가 성도, 천사, 기독교, 말씀, 그리스도, 복음, 천국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것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모두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1. 거룩함 없는 능력은 더 혐오스럽다

4. 말씀·그리스도·복음·천국의 미도 거룩함

시편 29:2

거룩함이 '아름다움'으로 불린다는 근거(시편 96:9, 110:3도 함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119:140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종이 사랑한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128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거짓을 미워한다(시편 119:138, 172도 함께)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19:7~10

율법의 완전함·순결함 때문에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다

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도행전 3:14

그리스도는 '거룩한 자'다(사도행전 4:27도 함께)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요한계시록 3:7

>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니엘 4:13

천사가 '거룩한 자'로 불린다(마태복음 25:31, 마가복음 8:38 등도 함께)

> 내가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사야 63:15 / 요한계시록 21:27

천국은 거룩함의 처소이고, 새 예루살렘의 미는 거룩함의 여러 모습이다

“거룩함이 없는 능력과 지식은 어느 존재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더 혐오스럽게 만든다.”

📜 4. 새 영적 감각이 맛보는 것

에드워즈는 첫째 표지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새로운 초자연적 감각'이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각은 미각이 다른 감각과 다르듯, 그 사람이 전에 가졌던 어떤 감각과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꿀을 보거나 만져서는 단맛을 모르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감각으로 아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장에서 그는 그 감각이 맛보는 대상이 바로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연결합니다. 예수님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달콤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119편을 참된 경건의 본질과 증거를 가장 온전하게 그린 곳으로 꼽습니다. 그 시편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음식과 즐거움, 갈망과 자랑의 대상으로 그려집니다.

1. 새 감각은 영적인 '미각'이다
2. 보고 만져서는 꿀맛을 모른다
3. 그 미각이 맛보는 것은 거룩함이다

5. 시편 119편은 경건의 교과서다

요한복음 4:32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거룩함이 맛으로 누리는 음식임을 보여 준다

>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4:34

그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시편 119:140

순결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시편 119편 전체의 기조

>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9:10

율법이 정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달다는 영적 미각의 고백

>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 5. 거룩한 본성은 거룩함을 사랑한다: 하늘과 땅의 찬양

"거룩한 사랑에는 거룩한 대상이 있다." 사랑이 거룩하려면 대상이 거룩해야 하고, 그 대상이 거룩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본성에 가장 잘 맞는 것은 그 본성 자신이므로, 성도 안의 거룩한 본성은 하나님과 말씀의 거룩함에 가장 잘 들어맞습니다. 에드워즈는 반대쪽에서도 같은 결론을 끌어냅니다.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과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의 거룩함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을 향하고 기뻐하는 것이 거룩한 본성입니다. 이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하늘입니다. 스랍과 영화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땅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 공의와 위엄, 자비와 신실하심을 찬양할

1. 거룩한 사랑은 거룩함 때문에 사랑한다
2. 죄악된 본성은 거룩함 때문에 미워한다
3. 스랍의 찬양은 “거룩하다”이다
4. 능력·공의·자비를 찬양할 때도 핵심은 거룩

이사야 6:3

스랍이 “거룩하다”를 세 번 외친다, 하늘이 사로잡힌 아름다움

>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8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심을 찬양한다

>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요한계시록 15:4

영화된 성도의 찬양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시편 98:1

능력을 찬양하는데 “거룩한 팔”이 그 아름다움이다

>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 99:3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가 “그는 거룩하시도다”이다(시편 99:5, 9도 함께)

시편 97:12

자비와 신실하심 앞에서 “거룩한 기념”에 감사한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사무엘상 2:2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한나의 찬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거룩한 사랑에는 거룩한 대상이 있다.”

📜 6. 시험의 기준: 이익인가, 아름다움인가. 위엄은 마귀도 안다

이 표지로 각자 자기 사랑과 기쁨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듯,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거룩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말씀, 성도와 천국을 사랑하는 것이 유익이나 기대 때문인가, 그 아름다움을 기뻐해서인가? 고조된 감정이나 황홀한 기쁨 속에도 이 거룩한 미각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두 방식으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는 나에게 큰 유익이 되어 자기 사랑에 맞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뒤의 방식으로 감화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두려운 위엄만 예민하게 느끼는 것은 확실한 표지가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떱니다. 심판 날에는 모든 피조물이, 지옥에서는 원수들이 영원히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의 악한 백성도 떨었습니다. 악인과 마귀는 하나님의 공의·진실·순결,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까지 다 보지만 단 하나, 그 아름다움만은 보지 못합니다.

3. 은혜가 좋아 보이는 데는 두 방식이 있다
4. 위엄 체험만으로는 확실한 표지가 아니다
5. 악인이 못 보는 것은 '아름다움' 하나뿐이다

이사야 2:10

심판 날 위엄 앞에서 숨으려 하는 자들, 위엄은 악인도 본다(이사야 2:19, 21도 함께)

>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민수기 14:21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리라는 맹세

>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출애굽기 9:16

원수들에게 능력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출애굽기 14:18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원수도 깨닫게 된다

>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출애굽기 15:16

열방이 놀라고 두려워한다

>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 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원수가 주의 큰 권능에 복종한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시편 46:10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 중의 현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 7. 느부갓네살: 위엄을 알고 찬양까지 한 사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무한한 광대하심, 두려운 위엄, 주권,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을 깊이 깨닫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자기와 온 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했고 선하심도 알았습니다. 다리오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녹이고 겸손하게 하며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는 일뿐입니다. 위엄만 보면 압도되어 힘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아름다움이 가려져 있는 한 적대감은 그대로 남고, 사랑은 생기지 않으며, 의지는 완고한 채로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위엄을 알면 두려움뿐 아니라 흥분, 기쁨, 찬양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면 그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특별히 총애해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셨다고 자만하면, 자연스럽게 큰 기쁨과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짐승처럼 살다 회복된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미하자고 외친 것이 그런 예입니다.

1. 느부갓네살은 위엄·주권·공의까지 알았다
2. 위엄만 보면 적대감과 완고함은 남는다
3. 마음을 녹이는 것은 거룩함의 아름다움뿐
4. 자연인도 은혜 받았다 여기면 찬양한다

[1]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3]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 4:34~35

회복된 뒤 하나님의 주권과 자기의 무가치함을 고백한다

[34]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다니엘 4:37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한다, 거듭남 없는 찬양의 사례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 6:25

다리오도 비슷하게 하나님의 완전성을 알았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 8. 최근의 과대 강조, 그러나 위엄 감각이 쓸모없지는 않다

경험으로 보건대, 그런 체험으로 흥분하고 고양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보이지 못했고 좋은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체험은 참된 영적 체험과 정반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위대하심을 느끼는 감각이 쓸데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품듯,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는 감각은 위대하심의 감각을 넘어서면서도 그것을 포함합니다. 성도는 오히려 거듭나지 못한 사람보다 더 자주, 더 나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본성적 완전성을 압니다. 성도는 속성 자체만 보지 않고 거룩함에서 나오는 그 속성들의 아름다움까지 보기 때문입니다.

1. 위엄 체험의 과대 강조는 나쁜 열매를 냈다
2. 위엄 감각 자체는 불필요하지 않다
3. 거룩함의 감각은 위대함의 감각을 품는다
4. 성도는 위엄도 '아름답게' 본다

> **(직접 인용 없음)**
> 경험에 근거한 결론 단락이라 에드워즈가 장절을 달지 않는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감정(affection)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며 강하게 기우는 움직임입니다.

도덕적 탁월성
의지를 가진 존재의 옳음과 사랑스러움, 곧 거룩함입니다.

본성적 완전성
능력·지식·영원·위엄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루는 속성입니다.

거룩함
모든 참된 도덕적 탁월성을 아우르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의·진실·신실·선하심

모형과 원형

사람의 거룩함은 하나님 거룩하심(원형)을 본뜬 그림자(모형)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중)

타락으로 잃은 도덕적 형상과, 이성·지배권처럼 남아 있는 본성적 형상입니다.

영적 감각(새 감각)

거듭날 때 주어지는 마음의 새 '미각'으로, 거룩함의 달콤함을 맛봅니다.

자연인(거듭나지 못한 자)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아 본성의 원리로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자아 사랑

나에게 유익한 것을 좋아하는 본성적 성향으로, 그 자체로는 은혜가 아닙니다.

스랍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 보좌 곁에서 “거룩하다”를 외치는 천사입니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참된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름다워서 기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 거룩함은 하나님과 말씀, 그리스도, 복음, 천국의 모든 아름다움을 결정합니다.
-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대한 강한 감동은 마귀와 자연인도 가질 수 있으니 확실한 표지가 아닙니다.
- 오직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는 일만이 마음을 녹이고 의지를 꺾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 성도는 위엄도 버리지 않습니다. 거룩함의 빛 안에서 위엄까지 아름답게 봅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14편 · 거룩함의 아름다움에 눈뜨다 · 표지 3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